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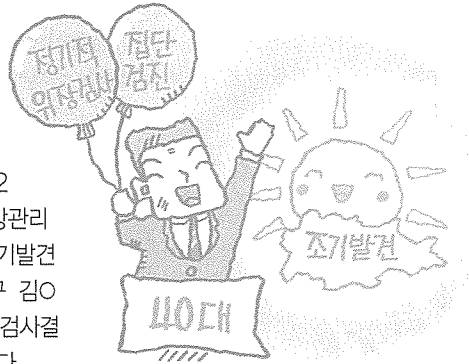
“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!” - 위암
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위암 유소견자 현황(1999년 3월 중)

암 검진인원			위암 유소견자(16명)	위암 확진자(10명)
28,741명	서 울		2명	1명
	부 산		5명	4명
	인 천		1명	1명
	강 원		2명	
	광 주 · 전 남		2명	
	경 북		3명	3명
	제 주		1명	1명

위암 조기 발견 사례

서울 노원구의 장○○씨(70세·남), 부산 사상구의 허○○씨(76세·여), 연제구 도○○씨(64세·남), 동래구 권○○씨(50세·남), 대구 달서구의 전○○씨(72세·남), 경북 경산시 박○○씨(69세·남) 등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위암을 조기발견하고 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 또 서울 송파구 김○○씨(50세·여), 강원 정선의 서○○씨(52세·여) 등은 검사결과 종양이 의심되어 현재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 중에 있다.



위암이란

- ① 위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좀더 진전되면 복부에 종괴가 만져지고 구토가 나며 복부 팽만감·상복부 불쾌감·체중감소·빈혈 등이 있고 위가 헐거나 궤양이 같이 오면 속쓰림 등 위궤양 증상이 나타난다.
- ②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면 황달·설사·기침·신경증상·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
- ③ 위암은 자극성있는 음식, 태운음식, 고탄수화물 식품의 과다섭취 등 식생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외에 유전·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.
- ④ 위암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식사습관 즉, 저자극성식품·훈제식품·뜨거운 음식 등은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먹도록 하며 규칙적이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므로 위암의 호발연령인 40대 부터는 정기적으로 위장검사를 받도록 한다.

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만으로도 95% 이상의 치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시된다.